

근대전환기 지식인의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

—연암 박지원의 경우

김 영*

<차 례>

1. 서언
2. 현실주의적 사유와 복학의 길
3. 청대문인과의 만남과 지적 교류
4. 중국서적의 유입과 학풍, 독서문화의 변화
5. 실용의 정신과 문제해결형의 독서
6. 결어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후기 복학과 문인 박지원의 중국여행을 재검토하여 근대전환기 지식인의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시대에나 여행은 있어왔지만, 전근대사회에서 해외여행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였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해외여행의 규모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것은 주로 연행사와 통신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중 연행사의 중국행은 청나라가 수도를 심양에서 연경으로 옮긴 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연행은 개항까지 계속된다.

박지원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고 있던 18세기를 살면서 조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 당시의 최고 문명국인 청나라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견문한 뒤 그 이국체험을 탁월한 필치로 기록하여 《열하일기》라는 걸작을 남겼다. 연암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개방적 진취성을 가지고 수용한 것은 그가 강조한 호문(好問)과 선학(善學)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라 하겠고, 그것을 조선 현실에 적용한 것은 지변(知變)과 창신(創新)의 실례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그런데 연암이 이렇게 그의 이국체험을 탁월한 성과로 결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 준비와 뚜렷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연암은 주지하다시피 북학과 동지들과 수시로 만나 조선현실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었고, 먼저 중국을 갔다 온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로부터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연행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말하자면 여행계획과 집필구상이 이미 끝나고 실제 여행을 통한 확인절차와 집필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열하일기》를 보면 중국을 가서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물어볼 것이며, 어디를 들러 무슨 책을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였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행 후 꼼꼼한 자료보강을 거쳐 《열하일기》라는 걸작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연암이 올바른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배들의 연행경험과 북학과 동지들과의 토론에 힘입은 바가 크며, 연암의 의식과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청나라 지식인과의 교류 및 중국서적에 대한 광범한 섭렵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열하일기》는 개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유방식을 한 문인의 야심작인 동시에 18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과 지식인의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이국체험, 지적 교류, 연행사, 박지원, 열하일기, 중국서적, 문제해결형의 독서

1. 서언

이 글은 조선후기 북학과 문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중국여행을 재검토하여 근대전환기 지식인의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한국고전연구학회 제61차 학술대회에 발표하고자 기필된 것이다. 박지원과 북학파의 경우 우리 국문학계나 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어 다시 거론하는 것이 자칫 진부한 논의로 떨어질 소지가 있으나,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18세기 동아시아 지

식인의 교류와 지식유통에 대한 성과들¹⁾을 수용하여 연암의 중국여행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지식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여행은 있어왔지만, 전근대사회에서 해외여행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였다. 사신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일은 고대국가 성립 이후에 있어왔고, 통일신라시대의 견당유학생처럼 공부를 하러 가거나 혜초(慧超, 704-787)같이 불법을 구하러 간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관리나 지식인, 승려 같은 특별한 신분이었다. 말하자면 해외여행은 특별한 신분계층에서 뽑힌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었고,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 이런 공식적인 해외여행을 제외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전쟁에 동원되어 국경을 넘거나 배가 표류되어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를 견문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이 전통시대에 외국인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접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국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한 여행기나 표류기, 연행록과 해행총재를 비롯한 견문기록은 이러한 이국체험의 소산으로 당사자는 물론 그 시대 문화계에 미친 영향은 다대하다 할 것이다.

1) 최근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의 한 사람인 정민 선생은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과 일본 체험을 문화충격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화 담론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p.57.) 이 시기 지식인의 외국문물 수용과 활발한 지적 활동을 ‘문화개방’과 ‘지식경영’이란 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참신한 발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와 활동을 ‘세계화 담론’과 ‘세계화 대응’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정민 선생의 이러한 「18세기 한문학연구와 문화사적 시야」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6-17면에 실린 발제자의 토론문 참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해외여행의 규모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것은 주로 연행사(燕行使)와 통신사(通信使)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중 연행사의 연행(燕行)은 청나라가 수도를 심양(瀋陽)에서 연경(燕京)으로 옮긴 1644년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때부터 개항(1876)까지 청나라에 간 사행이 612회에 달하고, 사행단의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하였다.²⁾ 사행단은 공식적인 외교임무를 맡은 정사와 부사, 서장관, 역관 외에 자제군관과 질정관같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임무를 맡은 삼사(三使)가 정치 외교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들 자제군관과 질정관같은 비공식 수행원들은 문화사절의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조선후기 삼대 연행록으로 꼽히는 《노가재연행록(老稼齋燕行錄)》(1712), 《담헌연기(湛軒燕記)》(1765)《열하일기(熱河日記)》(1780)는 다 자제군관으로 따라갔던 김창업(金昌業, 1658-1721),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박지원에 의해 쓰여졌고,³⁾ 규장각의 검서관이었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중국을 갔다 와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제 북학파를 대표하고 있는 문인 박지원의 경우를 통해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이국체험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경기문화재단, 2005), pp.292-301.

3) 이들 책을 3대 연행록으로 지칭한 분은 김경선 선생이다. 김태준, 『한국의 여행문학』(이대출판부, 2006) p.118 참조.

2. 현실주의적 사유와 복학의 길

연암 박지원은 조선시대 전통지식인들이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갇혀있어 조선사회가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음을 <북학의서(北學議序)>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한쪽 구석 땅에서 편벽된 기운을 타고나서 발은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은 중원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나고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제 강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고 까마귀의 빛이 검듯이 각기 제가 물려받은 천성대로 살았고, 우물의 개구리나 발의 두더지마냥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여기고 살아왔다. 예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왔으며, 이른바 사·농·공·상의 사민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고 이용후생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져만 간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생긴 폐단이다.⁴⁾

연암은 이렇게 답답한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투를 틀고 앉아 명분론에 사로잡혀 기존의 가치와 현실을 묵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발달한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가는 사람을 잡고서라도 물어보는 것이 학문의 도인데,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오랑캐들이라고 하면서 하(夏)·은(殷)·주(周) 이래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남아 있고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 새롭게 발전 해가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는

4) 『燕巖集』 卷7, <北學議序>.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을 비롯한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그룹의 지식인들은 ‘북으로 중국을 배우자(北學於中國)’고 하면서 실제로 중국을 돌아보고 왔다.⁵⁾

그런데 연암은 이렇게 북학을 해서 당시의 고루한 현실을 개혁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선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학과 학자들이 모두 양심적 지식인의 실천적 역할에 주목하였지만, 연암은 선비의 존재와 역할을 밝히는 <원사(原士)>라는 글을 쓸 정도로 선비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였다. 선비의 마음이 바로 뜻[志]이라고 하면서, 선비가 올바른 공부를 하면 그 혜택이 사해에 미치고 그 공덕이 만세에 드리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비가 실천적 학문을 하지 않으면 농사꾼·공장이·장사꾼이 모두 실업(失業)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선비는 농사의 이치를 밝히고[明農], 상업을 잘 유통시키고[通商], 공장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惠工] 실학을 탐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⁶⁾

연암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의 피폐한 현실을 광정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의 발달한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을 제창하면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북학과 동지들과 더불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제도를 연구하는 한편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선진문화를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연암이 44세 되던 1780년 드디어 그렇게도 바라던 연행의 기회가 왔다. 그의 삼종형 되는 박명원(朴明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 고종의 70수를 축하하러 가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중

5) 이러한 실학자들의 연행에 대한 개괄적 정리는 박성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연행과 우정의 지도』, 『연행의 사회사』(경기문화재단, 2005) pp.52-78 참조.

6) 연암의 선비의식에 대해서는 줄고, 연암의 士의식과 독서론,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집문당, 1993) pp.203-208 참조.

국에 가게 되었다. 그는 발달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 낙후한 조선 현실을 개혁해야겠다는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의 심양, 북경, 열하 등지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아시아의 교양서로 널리 읽혀지는 《열하일기》이다.

연암이 중국에 갔던 18세기 후반은 건륭황제의 치세(治世)가 계속 되던 시기였다. 청나라가 대륙을 평정해 다스린 지 100여 년이나 지나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때였다. 연암은 설레는 마음과 천하대세를 전망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가 그곳의 주거·성곽·도로·수레제도 및 생산도구 등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열하일기》의 전반부에는 중국의 기술문명과 문물제도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고 및 그것의 현실적용 방안에 대한 논설이 많이 실려 있다.

그는 먼저 유통경제의 근간이 되는 도로와 운송수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고 수레가 운행되지 않아 모든 재화가 잘 유통되지 않고, 자급자족의 경제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개탄하여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천릿길을 오면서 날마다 수없이 많은 수레를 보았으나 앞 수레와 뒷 수레가 언제나 한 자국을 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쓰지 않고도 같이 되는 것을 일철(一轍)이라 하고 뒤에서 앞을 가리켜 전철(前轍)이라고 한다. 성문턱 수레바퀴 자국이 움푹 패어서 홈통을 이루니 이는 이른바 성문지궤(城門之軌)라 한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수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퀴가 온전히 동글지 못하고 바퀴자국이 틀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우리나라는 길이 험하여 수레를 쓸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쓰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테니 어찌하여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리오.⁷⁾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우선 유통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암은 이러한 문제를 《열하일기》 후반부에 실린 걸작 <허생전>에서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생전>에서는 조선은 배가 외국으로 운행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잘 다니지 않는 까닭에 백 가지 물화가 그곳에서 생산되어 그곳에서 소비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횡행할 수 있음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암은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볼 때마다 그것을 조선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늘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기술문명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과 함께 그것을 조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틈나는 대로 《열하일기》에 마련해두고 있다. 《열하일기》를 보면 이국문물에 대한 연암 특유의 날카로운 지적 호기심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조선에 수용해 활용할까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이 관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대 문인과의 만남과 지적 교류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이와 같이 중국의 발달한 문물에 대한 견문만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질문명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국의 지식인과 민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다. 그래서 연

7) 《熱河日記》〈車制〉.

암은 될 수 있으면 중국의 여러 선비들과 만나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학문적 교류를 하였고,⁸⁾ 민중들의 동향에도 예민한 관심을 기울였다.

연암이 열하 체류 중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는 왕민호(王民皐), 윤가전(尹嘉銓), 추사시(鄒舍是) 같은 지식인이 있었다. 연암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중국의 고금 음악과 역대 치란 등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 연암은 이러한 학문적 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당시 청조 학계에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고증학풍이 성행하는 사실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황교문답(黃敎問答)>의 서두에서 당시 중국의 학풍을 매도하는 추사시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즉 당시의 학자들은 이기(理氣)니 성명(性命)이니 하는 따위의 강론만 할 뿐 실사와 실무에는 전혀 무능한 이학(理學) 선생이거나 케케묵고 고루하기 짝이 없는 도학군자로 이설(異說)을 내세우며 남의 학설이나 공격하는 데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사시는 “오늘날의 유자들이야말로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섭고말고요. 저는 평생 동안 유학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극언까지 하였다. 그런데 비해 추사시를 데려온 왕민호의 주자학 비판은 보다 학문적인 논리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주자가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 고경을 의심하고 고증에 불철저하였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주자는 《시전》에서 《시경》의 <정풍> <위풍>이 모두 음란한 시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자가 말한 ‘방정성(放鄭聲)’의 의미가 가사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나라 음악을 금하라는 것인데도 이를 주자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 18세기 들어 청대 문인과의 지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재교, 『18세기 조선조와 청조학인의 학술교류』, 고전문학연구 23집(2003.6) 및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지적 교류와 지식의 유통』, 한국한문학회 2007년도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집(2007.12) 참조.

한편 《열하일기》 중 <피서록>, <양엽기>, <동란섭필> 같은 글에는 청조 문예관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역대 문학교류에 관한 것으로 최치원(崔致遠), 이제현(李齊賢), 김상헌(金尙憲) 등 중국 쪽에 알려진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와 아울러 소동파(蘇東坡) 등 중국인이 조선과 관련하여 지은 시를 그에 얽힌 일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당시(全唐詩)》, 《명시종(明詩綜)》 등 청조에 들어와 간행된 시선집 중 조선과 관련되는 내용상의 오류를 연암이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그의 실사구시적인 학문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올바른 조선관을 심어주려는 그의 주체적인 세계관의 자연스런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국내의 유득공(柳得恭), 이덕무(李德懋), 나걸(羅杰)의 시들을 중국에 알리는 한편 반정균(潘庭筠), 곽집환(郭執桓) 등 연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국 문인들의 시와 아울러 청조 시단의 최근 작품들도 소개하고 있다.

연암이 이와 같이 중국의 문물들을 두루 견문하고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늘 견지하고 있었던 태도는 주체적인 세계인식의 자세였다.⁹⁾ 그는 중국의 발달한 문물을 보면서 늘 그것을 조선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고,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면서도 그들에게 배울 곳은 과감하게 배우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다. 연암에게 있어 북학은 중국을 추종하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인식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면모를 <혹정필담(鶴汀筆談)>에서 중국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부러 지전설(地轉說)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데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늘은 둥글지만 땅은 모가 나며, 하늘은 돌지만 땅은 정지해 있다는 우주관에 근거해 성립된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 지

9) 연암의 주체의식에 대해서는 임형택, 박지원의 주체의식과 세계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창비사, 2002), pp.141-154 참조.

구는 둥글며 돌고 있다는 학설을 일부러 소개한 것이다. 중국 중심주의적인 천하관을 극복하는 데는 이 지전설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연암이 종래의 천문관은 잘못된 것이며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자, 중국 사람들은 이 주장을 놀라운 학설로 받아들인다. 연암은 중국의 발달한 문물이나 선진지식은 겸허하게 배우되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그의 연행 목적이 단지 중국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조선 현실을 올바르게 개혁할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하일기》에는 선진문물을 두루 배워 당시의 낙후한 조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이용후생의 실학정신과 주체적인 세계인식의 자세가 일관되게 견지되어 있다고 하겠다.

4. 중국서적의 유입과 학풍, 독서문화의 변화

성리학과 과거를 위한 공부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뜻 있는 선비들은 ‘시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다양한 경전해석을 시도하고, 원시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博學’을 실천하려고 했다. 17세기에는 윤휴(尹鑄, 1617-1680)와 박세당(朴世堂, 1629-1703)같은 이들은 주자(朱子) 일변도의 경전해석을 지양하려 노력했고, 18세기로 오면 이광정(李光庭, 1674-1756)같은 문장가도 옛날 사람들이 ‘박약공부(博約工夫)’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이 글의 문맥에서는 주자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¹⁰⁾이라고 하면서 박학 분위기의 확산에 앞장선다.

이런 경향은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서적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 되거니와, 특히 청나라로부터 고증학이 유입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의

10) 『訥隱集』 卷5 <答李景文休文昆仲>
古人所謂博約工夫, 誠不可專靠於一書.

경전해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증학은 학문의 방법상 필연적으로 박학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증학이란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라면, 다양한 서적의 열람은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라는 것이다.¹¹⁾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책 사랑은 남 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다. 연암의 《熱河日記》를 보면 소동파가 고려 사신들이 서적을 사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상소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분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니와,¹²⁾ 조선인의 도서구입 열기는 중국인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조선인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사신의 입공은 50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옛 책 또는 새 책 혹은 폐관소설로 조선에 없는 것을 날마다 시중으로 나가 서목을 베껴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물어보고 비싼 값을 아끼지 않고 구입해 간다. 그래서 도리어 특이한 책의 이본이 많다.¹³⁾

중국에 없는 책이 조선에 있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중국에 갈 때 마다 중국의 서점을 돌아다니며 책을 마음껏 구입하고 돈이 떨어지거나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는 책의 서목이라도 적어왔다.¹⁴⁾ 연암이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1780년 연암의 중국견문을 기록한 《열하일기》에는 서적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이 표출되고

11)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집(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p.189.

12) 《熱河日記》 <忘亡錄> 조.

13) 姜紹書 《韻石齋筆談》 卷上.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문화, 『연행의 사회사』(경기문화재단, 2005) p.239에서 재인용.

14) 최근 들어 중국서적의 수용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위의 주석에서 언급한 논문들 외에도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혜안, 2006)에 수록된 남정희의 공안과 서적의 도입과 독서체험의 실상, 정선희의 18세기 조선문인들의 중국소설 독서실태와 독서담론연구가 참고 된다.

있거니와, 북경의 골동서화의 거리인 유리창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은 펍 흥미롭다.

오른편으로 굽어서 유리창에 들어간즉, 첫 거리에 ‘오류거(五柳居)’라는 세 글자의 간판이 붙었다. 이는 도옥(屠鈺)의 책사이다. 지난해에 이덕무와 박제가가 이 책사에서 책을 많이 샀다하면서 펍 흥미롭게 이 오류거를 이야기 했는데, 이제 내가 이곳에 오고 보니 옛 친구를 만난 듯싶다.¹⁵⁾

연암은 유리창의 오류거뿐만 아니라 양매서가(楊梅書街)에 있는 유명한 선월루(先月樓), 문수당(文粹堂), 명성당(鳴盛堂) 같은 서점을 들러 책을 구입했고 책값이 비싸 사지 못할 경우 서목이라도 일기에 적어두었다. 이러한 활발한 중국서적 구입에 맞물려, 조선후기 사대부가에는 책을 모으는 장서열풍이 분다.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의 <독서차기(讀書劄記)>에는 18세기의 4대 만권당으로 안산의 유명천(柳命天) 유명현(柳命賢) 형제 양가, 진천의 이하곤(李夏坤)가, 서울의 이정구(李廷龜) 후손가를 들었다.¹⁶⁾ 또 홍한주(洪翰周, 1798-1868)의 <지수염필>에는 중국의 장서가를 소개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장서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고 작은 나라지만, 심두실의 숙당에 거의 4만권의 책이 있고, 조유하 조병귀, 윤석취 윤치정 두 집안의 책도 역시 3-4만권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진천현 초평리 이경억의 만권루와 두릉리 서유구의 8천권이 그 다음이다.¹⁷⁾

15) 《熱河日記》<還燕道中錄> 및 <黃圖紀略> 참조.

16) 강경훈, 「중암 강이찬문학연구」, 고서연구 15(보경문화사, 1997) 주 26 참조.

17) 강명관, 위의 논문, pp.180-181에서 재인용.

18세기의 이러한 장서수장 분위기 덕분에 이덕무는 규장각 검서관이 되기 전에 이서구와 심념조의 만권루에 수장된 책을 마음껏 이용했고, 박지원 역시 이서구과 삼중형 박명원, 유한준 같은 장서가들의 도서를 빌려 볼 수 있었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간 정약용(丁若鏞)이 18년 동안 방대한 저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외가인 해남 윤씨가 가진 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기도 하였다.

최근 김영진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조선후기 소품문 출현의 배경에는 명청서적의 영향이 컸다고 하면서 어떤 서적이 언제 들어와 읽히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¹⁸⁾ 이 논문은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흙영(欽英)』을 검토하여 그가 열독한 도서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문학방면의 서적으로는 1767년의 『산해경(山海經)』 『목천자전(穆天子傳)』, 1774년의 『우초신지(虞初新志)』, 1776년의 『수호전(水滸傳)』 『서상기(西廂記)』, 1777년의 『금병매(金瓶梅)』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금고기관(今古奇觀)』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餘)』 『도덕경원익(道德經元翼)』 『열조시집소전(列朝詩集小傳)』 『백가류찬(百家類纂)』, 1778년의 『설찬(說纂)』 『수호후전(水滸後傳)』 『옥합기(玉閣記)』 『검협전(劍俠傳)』 『석주연의(石珠演義)』 『교방기(教坊記)』, 1779년의 『고사기염(古史奇艶)』 『홍선전(紅線傳)』 『모란정극(牡丹亭劇)』 『비과기(琵琶記)』 『당시류원(唐詩類苑)』, 1780년의 『성세기관(醒世奇觀)』 『정사(情史)』, 1781년의 『한정우기(閑情寓寄)』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 『곤명연의(昆明演義)』 『왕양명문초(王陽明文抄)』, 1782년의 『전등신화(剪燈新話)』 『협향정(俠香亭)』 『춘원기(春苑記)』, 1783년의 『육포단(肉蒲團)』 『서호가화(西湖佳話)』, 1785년의 『천군기(天君記)』 『동림열전(東林列

18)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고려대박사논문(2003.12), pp.28-34.

傳)』 『침중기(枕中記)』 『일지록(日知錄)』, 1786년의 『요재지이(聊齋志異)』 등이 눈에 띈다. 이 논문은 유만주 외에도 이용휴(李用休, 1708-1782) 소장의 명인문집목록, 연암이 들렀던 바 있는 명성당 의 서적목록, 이덕무의 『뇌뢰락락서(磊磊落落書)』에 인용된 중국서적, 이옥(李錡, 1760-1815)의 글에 보이는 소설 및 명청소품 서목,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 목록을 제시하여, 18세기에 중국의 어떤 책들이 들어와 읽혔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광범한 도서구입과 장서열풍은 18세기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암은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독서론을 전개하게 된다.

5. 실용의 정신과 문제해결형의 독서

선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책을 읽는 것이 선비”¹⁹⁾라는 명쾌한 정의를 한 바 있는 연암은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아니하면 면목과 말이 우아하지 않게 되며 심신이 갈 길을 잃어 기댈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자가 평생토록 그만두어서 안 되는 것이 독서²⁰⁾라고 하였다.

과거지학과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한 연암은 선비가 독서를 해서 이론 탐구한 성과가 자기의 입신출세나 명예 같은 자기욕망의 충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혜택이 사해에 미치고 그 공이 만세에 드리워지도록

19) 『燕巖集』 卷8, <兩班傳>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20) 『燕巖集』 卷10, <原士>

士一日而不讀書, 面目不雅, 語言不雅, 偃偃乎身無所依, 佗佗乎心無所適.

해야 한다²¹⁾고 생각했다. 연암은 무엇을 위해 독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독서는 장차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문장기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인가, 글 잘한다는 명예를 넓히기 위함인가. 학문을 강구하고 도를 논하는 것은 독서의 사요, 효제하고 충신하는 것은 강학의 실이며, 예약형정은 강학의 용이다. 독서를 하면서도 실용할 줄을 모르면 참된 강학이 아니며, 강학에서 귀하게 여기는 점은 그 실용을 행하는 데 있다.²²⁾

이와 같은 실천적 독서관을 가진 연암은 자연히 역사상 인물 가운데 그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대응력을 갖는 실용지학을 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을 “선독서자(善讀書者)”²³⁾라고 하였다. 연암은 그런 예로 공자와 맹자를 들고, 옛날 성인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담겨 있는 지극한 공평과 피나는 정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심한 자취를 헤아리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다. 연암은 책을 읽되, 그 책을 쓴 사람의 마음까지 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암이 말하는 선독서는 흥미를 위주로 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의苦心한 자취를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책읽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연암이 말하는 선독서자는 우리가 보통 책을 잘 읽는다고 하는 사람, 예컨대 소리를 잘 내거나 구두를 잘 짚거나 뜻을 잘 해독하거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의 정신을 읽을 줄 알고, 거기

21) 『燕巖集』 같은 곳, 같은 글.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22) 『燕巖集』 같은 곳, 같은 글.

23) 『燕巖集』 같은 곳, 같은 글.

에서 얻은 지혜를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할 줄 아는 독서인을 말한다.

이렇게 실천적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할 것을 강조한 연암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경서를 새로 읽고 농·공·상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용후생의 학과 기술을 연구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실용의 학을 전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경서를 실천적인 각도에서 재해석한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경서는 서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선정과 양민을 강조한 <대우모(大禹謨)>를 이런 각도에서 되새겨 보았다. 이 <대우모>는 양민의 근본은 수·화·금·목·토·곡(6府)을 잘 다스리는 데 있으며, 정덕·이용·후생(3事)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선정의 요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암은 이 대목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성격에 주목하여 수·화·금·목·토의 오행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정덕·이용·후생 가운데서 이용후생에 강조점을 두어 “자연을 잘 이용한 후에 후생을 할 수 있으며 후생을 한 뒤에 덕이 바로 잡힌다(利用然後, 可以厚生, 厚生然後, 德可以正矣)”²⁴⁾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을 마련한 연암은 당시의 성리학자들이나 위정자들이 그들의 중심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농지경영의 개선과 토지재분배문제 화폐정책과 유통경제론, 그리고 공업기술의 향상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탐구와 실험을 강조하였다. 연암은 고고한 사대부들처럼 돈 문제나 농사일, 기술개량 등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리는커녕, 바로 이러한 농·공·상의 편리를 위해 그 이치를 밝히는 것이 선비의 사명이라고까지 하였다.²⁵⁾ 그리고 연암은 이러한 실천적 이론탐

24) 『燕巖集』 卷1, <洪範羽翼書>.

25) 이러한 연암의 사회사상에 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增補版(지식산업사 1995) 참조.

구를 위한 독서뿐만 아니라 사실주의적인 정신과 경험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연을 관찰, 이용하고, 발달한 선진문물을 진취적 개방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독서를 하되 실용할 것을 강조하는 연암과 다산을 비롯한 실학파의 이러한 독서관을, 조선조 초기 관료사장파의 입신양명형의 독서관과 조선조 중기 사림파의 도학주의형의 독서관과 대비해서 문제해결형의 실천적 독서관이라고 부른 바가 있다.²⁶⁾

연암은 문제해결형의 실천적 독서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바른 선비는 어린이 같이 뜻을 오롯이 하고, 처녀가 몸을 지키듯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일정한 해를 마칠 때까지 문을 닫아걸고 옛 경전과 역사책, 그리고 농·공·상의 이치 등을 공부하여 현실타개를 위한 이론을 마련해야 되는 동시에, 실제의 체험을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해 당시의 정체된 사회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서하는 방법에는 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²⁷⁾

제군들이 나를 따라 공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정해놓고, 매일 경서 한 장과 강목 한 단을 읽되,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익히 외우고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대목은 토론해서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²⁸⁾

26) 위의 줄저, 「실학파의 독서론」 참조.

27) 『燕巖集』 卷10, <原士>.

28) 『過庭錄』 韓國漢文學研究 6집 부록 영인본 p.28.

연암은 독서를 할 때에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많이만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으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나쁘다고 했다. 독서를 할 때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탐내거나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할 양을 정해 놓고 날로 미쳐 익히면 뜻이 정해지고, 뜻이 밝아지며, 음이 농해지고, 의가 익혀져서 자연히 외위지게 되는데, 이것이 독서의 올바른 순서라고 하였다.

연암은 이러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의 적은 사사로운 욕심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²⁹⁾ 독서를 하면서 써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모두 사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해를 마칠 때까지 독서를 해도 학문에 진보가 없는 것은 사의가 그것을 해치기 때문이다.

백가를 두루 출입하고 경서에 의거하여 고구하더라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고 이익을 급구하기 위해, 배운 것을 한번 써먹어야겠다는 사의를 누르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독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할 때는 무엇보다 사사로운 뜻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먼저 공평무사한 마음과 백성을 이롭게 하고 만물을 윤택하게 해야겠다는 이민택물(利民澤物)³⁰⁾의 광명정대한 뜻을 가지고 해야 비로소 학문의 성숙과 사회의 발전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연암의 독서관은 자기의 입신출세나 적공을 위한 입신양명형의 독서관과는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입신양명형의 독서관이 자기의 입신출세를 위한 지위지향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연암의 독서관은 이민택물이라는 뜻과 당시의 문제적인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진 목적지향적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29) 『燕巖集』 卷10, <原士>.

30) 『燕巖集』 卷17, <限民名田議>.

그러므로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광명정대한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세가 진지하고 겸허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연암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물어보아야 하며, 어린아이나 종이라도 자기보다 한 자라도 더 많이 안다면 그에게 우선 배우라고 하면서, 만약 이러한 진리 앞에 겸허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지 않고, 자기가 남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이는 종신토록 자신을 무식하고 고루한 지경에 가두어두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³¹⁾

이렇게 진리가 담긴 책을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

책을 대해서는 하품을 하지 말고, 기지개를 켜지도 말고, 졸지도 말아야 하며, 만약 기침이 날 때는 머리를 돌려 책을 피해야 하며, 책장을 뒤집되 침을 묻혀서 하지 말고, 표지를 할 때 손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서산(書算)을 하면서 번수를 기록할 때에는 뜻이 들어가면 헤아리고, 뜻이 들어가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책을 베고 자서는 안 되며, 책으로 그릇을 덮지 말고, 권질을 어지럽게 두지도 말고, 먼지를 털고 좀벌레를 쫓으며, 맑은 날에는 햇빛을 쬐이고, 남에게서 빌려온 서적의 글자가 잘못되었으면, 교정을 봐서 쪽지를 붙이고, 종이가 떨어졌으면 붙이고 꿰맨 실이 끊어졌으면 새로 꿰매어서 돌려줘야 한다.³²⁾

연암은 진리가 담긴 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책을 빌려주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연암은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 가운데서, 책은 일정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즐기고

31) 『燕巖集』 卷7, <北學議序>.

32) 『燕巖集』 卷10, <原士>.

학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소유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책을 쌓아 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줄 모르는 사람을 꾸짖고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孔子의 “군자는 글로 친구를 모으고 그 친구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이라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대가 인을 구할 것 같으면 천 상자의 책을 친구와 더불어 같이 보다가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할 것이지, 그것을 높은 다락에 묶어 놓고 구구하게 후세에 전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나무라고 있다.

이러한 연암의 독서관은 그의 실용적 학문자세와 함께 당시의 중국으로부터의 서적유입과 그에 따른 독서문화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6. 결어

이상에서 우리는 연암의 경우를 통하여 근대전환기 지식인의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암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고 있던 18세기를 살면서 조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 당시의 최고 문명국인 청나라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견문한 뒤 그 이국체험을 탁월한 필치로 기록하여 《열하일기》라는 걸작을 남겼다. 연암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개방적 진취성을 가지고 수용한 것은 그가 강조한 호문(好問)과 선학(善學)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라 하겠고, 그것을 조선 현실에 적용한 것은 지변(知變)과 창신(創新)의 실례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연암이 이렇게 그의 이국체험을 탁월한 성과로 결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 준비와 뚜렷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연암은 주지하다시피 북학과 동지들과 수시로 만나 조선현실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문제

의식을 기다듬었고, 먼저 중국을 갔다 온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로부터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연행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말하자면 여행계획과 집필구상이 이미 끝나고 실제 여행을 통한 확인절차와 집필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열하일기》를 보면 중국을 가서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물어볼 것이며, 어디를 들러 무슨 책을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였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행 후 꼼꼼한 자료보강을 거쳐 《열하일기》라는 걸작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연암이 올바른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문제해결형의 독서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연행체험과 북학과 동지들과의 토론에 힘입은 바가 크며, 연암의 의식과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연행 중에 있었던 청나라 지식인과의 교류 및 중국서적에 대한 광범한 섭렵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암의 대표작 《열하일기》는 개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유방식을 한 문인의 야심작인 동시에 18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과 지식인의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집, 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pp.171-194.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비사, 1990, pp.1-280.
-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pp.1-310.
-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증보판, 지식산업사, 1995, pp.1-627.
- 김 영, 「연암의 사의식과 독서론」,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pp.203-208.
-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박사논문, 2003.

- pp.1-181.
-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2005, pp.292-301.
- 김태준, 『한국의 여행문학』, 이대출판부, 2006, pp.1-153.
- 김혈조, 『박지원의 산문 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pp.7-569.
- 남정희, 「공안과 서적의 도입과 독서체험의 실상」, 『17, 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혜안, 2006, pp.15-49.
- 박성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연행과 우정의 지도」,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2005, pp.52-78.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pp.1-463.
- 임형택, 「박지원의 주체의식과 세계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비사, 2000, pp.141-154.
- 임형택, 「실학사상과 현실주의문학」,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비사, 2002, pp.371-391.
-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대동문화연구』 42집, 성균관대, 2003. 6, pp.1-19.
- 정 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6, pp.13-610.
- 정 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pp.1-445.
- 정선희, 「18세기 조선문인들의 중국소설 독서실태와 독서담론연구」, 『17, 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혜안, 2006, pp.51-90.
- 진재교, 「18세기 조선조와 청조학인의 학술교류」, 『고전문학연구』 23집, 2003.6, pp.301-323.
- 진재교,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지적 교류와 지식의 유통」, 한국한문학회 2007년도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집, 2007.12, pp.21-38.

ABSTRACT

Park Ji-won's travel to China and change of his world view

Kim, Young

This study is purposed to review Park Ji-won's changed world view after his travel to China by examining *Yol-Ha Journal*(열하일기), a travelogue on China. As it was extraordinarily rare, only a few people could afford to travel abroad at the Chosun dynasty. However, owing to the advent of Yeon-Hang-Sa(연행사), a diplomatic mission dispatched to China, an overseas traveling has been rising in its size and frequency at the late of Chosun dynasty, a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Middle age to the Modern in Korea.

It was Park Ji-won's idea that the Chosun society would be more retarded without a reformation of public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hosun should learn how to adapt herself to a new environment of the world change and import a new culture of the Ching dynasty, as it were, China under development and enlightenment. For this reason, he insisted on a new study of the Ching's advanced culture and science, what is called, "Studies on the North"(북학의). He argued that an immediate adaptation of the Ching's advanced culture would make Chosun enable to reform herself in every aspect. When he traveled to China in 1780, hence, he recorded every single aspect of his entire experience in China. His close attention on the advanced technology and culture of China were fully appertained to his *Yol-Ha Journal*.

It was not only his experience and research on the advanced culture of China that we can find in his book. Along with his interest on material civilization of China, we can also find his concern on the condition of grass people and intellectuals of China. He tried to exchange more ideas with Chinese scholars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grass people as

much as possible. He also bought a lot of books during his voyage. His correspondences and exchanges of opinions with Chinese scholars contributed to his deep understanding on the outside and his realistic formation of the world view.

Key Words Park Ji-won, *Yol-Ha Journal*(열하일기), travelogue on China, exchanges of opinions with Chinese scholars, influence of Chinese books.

논문투고일 : 2008. 3. 30 게재확정일 : 2008. 5. 4
